



칩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대학 연구실 장비 도입과 학생 기기 구매 부담이 늘어난다.

(사진=AI생성)

## 칩플레이션, 두 배 넘게 오른 서버 가격 학생 필수품, PC·노트북 가격도 동반 상승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반도체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단가 급등이 완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칩플레이션(Chipflation)’ 현상이 대학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최근 PC용 범용 D램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23.6% 상승했다. 또한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이번 1분기 모바일용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 역시 전 분기 대비 각각 50%, 90% 이상 올랐다. 전자공학과 홍상훈(전기전자공학) 교수는 이런 현상에 대해 “최근 생성형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생산이 확대되면서 기존 범용 메모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D램과 낸드플래시는 각각 데이터의 빠른 처리와 영구 보존을 담당하는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는 이공계열의 고성능 연산 및 연구에 필수적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대학은 이러한 필수 인프라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우리학교에 GPU 및 서버를 납품하는 AI 장비 업체 ‘BARO AI’ 관계자에 따르면, AI 모델 학습에 주로 쓰이는 GPU ‘RTX 프로 6000 블랙웰’ 가격은 지난해 약 1,400만 원 선이었지만, 올해 약 15% 상승해 1,600만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계자는 “서버 전체 가격 역시 15~20%가량 올랐으며, RAM 가격은 변동성이 커 정확한 예산 증가분을 수치화하기 애매하지만 서버와 비슷하게 작년에 비해 많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상승에도 구매 수요는 꾸준하다”면서도 “최근 문의를 통해 견적을 확인한 학교 측이 크게 놀라는 경우가 잦다”고 밝혔다.

칩플레이션 여파는 교원의 연구 환경에서 즉각 나타나고 있다. 컴퓨터공학과 김수현(컴퓨터공학) 교수는 “비유하자면 과거 가격 폭등 이전에는 GPU 4장을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같은 예산으로 3장밖에 구하지 못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장비를 확보해 온 교연자 교수와 달리, 연구실 인프라를 이제 막 구축하려는 신입 교수에게 타격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3년에 부임한 전자공학과 임영현(전기전자공학) 교수는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려면 서버가 필수”라며 “서버 비용이 예전엔 2000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두 배 이상 값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서버 가격이 상승하면 대학원생들에게 돌아가는 인건비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임 교수와 같은 해 부임한 컴퓨터공학과 장대희(컴퓨터공학) 교수는 “연구 목적이 아닌 일반 컴퓨터를 구입하려 했지만 가격이 2배가 넘

었다”며 “원래 예상한 수량의 절반 정도밖에 구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칩플레이션은 연구실을 넘어 일반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범용 메모리 단가 상승으로 대학 생활의 필수품인 개인용 PC와 노트북의 최종 소비자 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올해 주요 제조사의 신형 주력 노트북 출고가는 전작 대비 10% 안팎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고성능 모델 가격이 200만 원대 후반에서 300만 원대 초반에 형성되며 학생들이 체감하는 부담도 덩달아 커졌다.

안종현(전자정보학 2025) 씨는 “작년에 산 노트북이 고장 나서 새로운 노트북을 구매하려 했지만, 작년보다 가격이 80만 원이나 올라서 노트북을 구입하지 못하고 중고 노트북을 구매해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서준영(컴퓨터공학 2025) 씨는 “오랫동안 사용하던 아이패드를 다시 사려 했는데 20만 원가량 비싸졌다”며 “전공 특성상 수업 듣는데 태블릿이 필수적이지만 너무 비싸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 신입생 전원 ‘인가탐’ 교재 배부

유진우 기자 jinwooryu@khu.ac.kr

올해 입학한 신입생이라면 필수교양 ‘인간의가치탐색(인가탐)’ 교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서울캠 소속 내·외국인 학생은 청운관 지하 1층 문구 기념품점 옆에서, 국제캠 소속 내국인 학생은 학생회관 1층 로비에서 교재를 수령할 수 있다. 국제캠 소속 외국인 유학생은 국제처에서 배부를 담당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인가탐 교재 배부는 코로나 시기부터 이어져 온 입학키트 증정을 대신한 것이다. 총장실은 “우리대학의 창학정신과 교양교육의 가치를 신입생에게 전달하고,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문학적 소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유관 부서의 의견을 거쳐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수업에 활용되는 교재를 제공함으로써 신입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면서 “교재 불법 복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재를 배부받은 신입생 차정화(경제학 2026) 씨는 “키링이나 굿즈를 기대했던 친구들은 살짝 아쉬워했다”면서도 “막상 교재를 받아보니 필수교양에 필요한 교재를 받는 것도 의미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부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은 교재의 별도 보관 및 유보 처리는 불가능하다.

국제캠 학생지원센터는 “배부 시작일(4일)에 1,111부가 소진된 이후 남은 약 1,600부의 배부 속도가 부진하다”며 “졸업 전 꼭 들어야 하는 교양 과목인 만큼 신입생이 모두 교재를 찾아가 도움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